

제4실 | 향목·계량기

【향목】

인도부터 동남아시아에 이르는 열대, 아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나무 중에는 향기로운 냄새를 뿜는 수지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를 향목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향목이 나지 않으므로 해외로부터의 수입품이 사용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사원에서는 향목을 수장하였는데, 호류지에서도 전단목, 백단향, 침수향 등의 향목이 전해졌습니다. 백단향에는 사산조 페르시아의 팔레비 문자로 된 각명이나 소그드 문자로 된 소인이 남겨져 있으며, 동남아시아 부근에서 산출된 향목이 소그드인이나 페르시아인에 의해 당나라로 운반되고, 그것이 일본으로 전해지는 무역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N-112 전단향

N-113 백단향

N-114 침수향

【계량기】

호류지 헌납 보물에 포함된 계량기는 나라 시대의 <쓰리마스>, <홍색 상아 발루 자>와 무로마치시대의 <오마스>, <잇쇼마스>가 있습니다.

N-122 쓰리마스

쓰리마스란 줄에 매달아 사용하는 되를 가리킵니다. 구연부 주변에 적혀 있는 명문 ‘중대 26근(重大 廿六斤)’은 마스 자체의 중량을 나타내며, ‘수 1석 4말(受一石四斗)’은 그 용량을 나타냅니다. 곳곳에 파손된 곳을 수리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호류지에서 오랫동안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N-123 오마스

오마스는 큰 되라는 뜻입니다. 용적은 5승 2홑 8작(9.521리터)으로, 다른 잇쇼마스(한 되들이 되)의 5배에 해당하여 고쇼마스(다섯 되들이 되)일 가능성이 큼니다. 명문은 남아 있지 않지만 무로마치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N-124~128 잇쇼마스

잇쇼마스는 한 되들이 되라는 뜻입니다. 용적은 8홑 2작(1.472 리터)에서 1승 4작(1.87 리터)까지 다양하지만 모두 잇쇼마스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중세에는 지금과 달리 각 장원이나 영주, 또는 사원 내부에서 같은 잇쇼마스라도 다양한 용량의 마스가 사용되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유물입니다.

N-83 홍색 상아 발루 자(紅牙撥鑲尺)

넌표척(나라시대에 사용된 자)의 일 척(약 29.7cm) 자로, 상반부를 5개로 구획해 눈금을 표시했습니다. 발루란 상아를 홍색, 녹색, 감색 등으로 염색한 후 표면을 파서 흰색 무늬를 나타내는 기법입니다. 여기서는 상아 표면을 홍색으로 염색해 보상화와 원앙을 선각하였습니다.

* 다음 회차에는 악기를 전시합니다.